

해외 수산생물 질병발생 동향 (제2015-8호)

2015. 5. 7. (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 노르웨이, 전염성연어빈혈증(Infectious Salmon Anemia) 발생 의심 보고(4.27)

- 노르웨이 Nordland 주 Øksnes 13783번 양식장에서 전염성연어빈혈증(ISA) 의심사례가 보고되었다. 양식장 소유주는 Øyfisk AS이다. 노르웨이 수의과학원(Norwegian Veterinary Institute)은 4월 23일 ISA 의심사례 발생을 통보했으며, 동 건은 4월 16일 해당 지역에서 수거한 어류 샘플을 조사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노르웨이 식품검사청(Norwegian Food Safety Authority)은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해당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허가 없이 어류를 옮기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해당 양식장은 이미 식품검사청과 연락하여 필요 조치와 실질적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질병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동일 군으로 추측되는 바이러스로 야기된다. 연어에 생기는 질환이지만 사람에게 해가 없다. 수의과학원은 곧 췌장병(Pancreas Disease)과 ISA 발병사례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ISA를 예방하고 제한하며 발병을 퇴치하기 위한 단속지역이 곧 발표될 것이다. 단속지역은 ISA 퇴치지역과 감시지역으로 구성되며 해당 양식장 안이나 밖으로 물을 이동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단속지역은 지형 및 현 상황에 따른 특성을 감안해 확장될 것이다. 이 지역은 ISA 발병 장소로부터 10에서 20킬로미터 반경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출처 : http://www.mattilsynet.no/fisk_og_akvakultur/fiskehelse/fiske_og_skjellsykdommer/ila/mistanke_om_ila_i_oppdrettsanlegg_i_oksnes_kommune_i_nordland_fylke.18914

■ 태국 새우 업계, 새우 조기폐사증후군(EMS) 회복으로 생산량 증가 전망(4.28)

- 태국 새우 업계가 작년 발생한 새우 조기폐사증후군(Early Mortality Syndrome, EMS)에서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타이유니온냉동식품(TUF)이 인도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생긴 공급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TUF 이사인 Rittirong Boonmechote는 TUF가 올해 새우 수출을 300억 바트(약 9700억 원)까지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중 280억 바트(약 9100억 원)는 냉동 제품이다. 최근 발생한 EMS 때문에 새우 65만 톤이 폐사됐지만 TUF는 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 지난해에는 EMS로 생산량이 21만 톤까지 줄었다. 태국 수산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했다. 덕분에 2015년 1분기에 생산량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산부는 올해 새우 생산량이 20에서 25% 증가하여 25만에서 2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http://www.pattayamail.com/business/tuf-to-expand-shrimp-exports-as-industry-recovers-from-disease-outbreak-46598#sthash.gPotCJ8i.dpuf>



미국 Yellowstone, 선회병(Whirling Disease) 연구 동향 발표(4.21)

- 선회병은 유럽에서 전파된 기생충인 *Myxobolus cerebralis*가 원인균으로 송어 및 연어 일부에 감염되고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미국 내 25개 주에서 발병이 확인됐다. 생활사 동안 두 가지 포자 형태로 나타나고 보통 수중 실지렁이 (*Tubifex tubifex*)와 민감성이 있는 어류를 숙주로 둔다. 컷스로트 송어는 특히 생활사 처음 몇 개월 간 질병 감수성이 크다. 기생충은 어류 연골을 먹이로 하며 질병에 감염된 어류는 골격기형, 꼬리흑화, 선회유영을 보인다. 감염 어류는 정상적으로 먹이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식 당할 위험이 크다. 이 병에 감염 어류 혹은 서식 환경을 구제하기 위한 치료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 선회병은 1998년 옐로스톤 호수(Yellowstone Lake)에 서식하는 컷스로트 송어에게서 처음 발견된 후 파이어홀 강(the Firehole River)과 옐로스톤 호수 분수계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 호수 내 컷스로트 송어 감염률은 20%이다. 기생충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지류는 펠리칸 지천 (Pelican Creek)과 옐로스톤 호수 방수구의 하류 부근이다. 펠리칸 지천에서 질병이 가장 심각하게 드러났는데, 이곳은 한 때 상류로 회귀하는 3만 마리의 컷스로트 송어 서식지였다. 이 지천의 산란 개체 수는 옐로스톤 호수에서 확산된 선회병과 송어 외래종의 토종 포식 때문에 눈에 띄게 줄었다. 기생충 포자를 지녔지만 초기 감염에서 살아남은 성어를 조사한 결과 옐로스톤 호수 내 컷스로트 송어 일부는 선회병에 내성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컷스로트 송어 산란지역은 온열, 수문학 및 지질학적 다양성을 지녔기 때문에 토종 송어에 발병하는 선회병을 연구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다. 공원 측은 몬타나주립대학 생태학과와 손잡고 다양한 개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감염률 차이를 측정하고 있다. 어류를 먹이로 하는 특정 조류 역시 기생충을 확산시키는 원인임이 드러났다. 연구 결과 상기 기생충은 왜가리 등 일부 조류의 위장을 통해 확산되며 생존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2012년 실시된 조사에서 펠리칸 지천은 선회병 감염 위험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옐로스톤 호수 산란 지류 전반에 선회병이 퍼진 것은 아니고, 호수에 서식하는 치어와 성어 유병률도 낮았다. 하지만 옐로스톤의 독특한 환경 요인 등 기생충에 대한 드러나지 않은 연구 대상들이 여전히 많다. 공원 관계자는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낚시, 보트, 수영 등을 자제하고 진흙과 수식물이 닿은 모든 장비와 신발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철저히 세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낚시꾼은 포획한 어류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포획 지역에서 세척해야 한다.

출처 : <http://www.nps.gov/yell/learn/nature/whirlingdisease.htm>